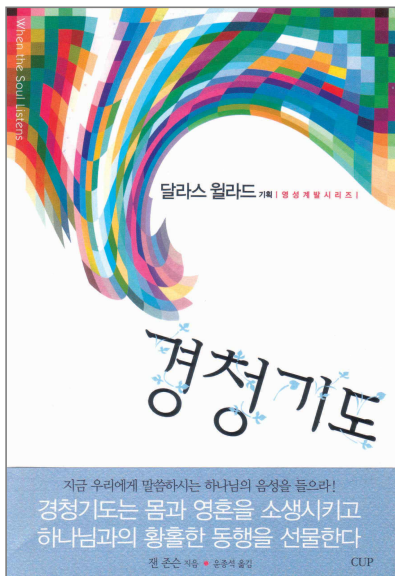


서
평

경청기도

젠 존슨 지음, 윤종석 옮김, CUP



하나님 마음을 만나는 기도의 깊은 바다로 안내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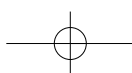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영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성의 방향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영혼의 고갈을 경험하고 있으며, 영혼의 새로움을 더욱 갈망하며 살아간다. 이 책은 이런 갈망에 응답하는 마치 한 모금의 생수와 같은 책이라고 할 만하다. 기도 없이 우리의 영혼은 쉴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인의 기도의 영역은 무척이나 단조롭다.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탐험한 기도의 깊은 바다를 여행할 시간이다. 「경청기도」는 이런 우리를 기도의 깊은 바다로 안내할 것이다. 이 책의 안내를 따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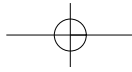
‘경청기도’는 흔히 ‘관상기도’로 알려져 있는 기도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경청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쉽고 평화를 발견하기를 갈망한다.

젠 존슨은 기도의 이론과 실천을 익히고 있는 영성 운동의 좋은 멘토이다. 그녀의 글은 천박하지도 난해하지도 않다. 그녀의 책은 쉽지만 깊은 영성의 호흡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따라서 이 책은 읽고 바로 적용이 가능한 책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경청하는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이 책으로 한국 교회의 기도 운동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주시옵소서’의 한계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부르짖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들음’이다.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고 듣고자 하는 기다림의 여백을 등한히 해 왔다. 그래서 이 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부흥을 기대한다.

이동원(지구촌교회 담임목사)





하나님과의 황홀한 동행을 경험하게 한 경청기도

경청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14년이 되었다. 목회 10년만에 지친 몸을 이끌고 안식년차 시작한 임상심리학 박사 과정에서 뜻밖에도 소개받은 관상기도였다. 10년간의 열정적인 ‘자의적이고 행위중심의 사역’에 지쳐 있던 나를 보고 몇몇 교수들이 초청한 기도모임이었다. 전통보수주의 신앙 가운데 성장한 나에게는 이질감과 경계심을 일으키는 기도 방법이었지만 이미 지친 내 몸과 영혼에게는 가릴 처지가 못된 것 같다.

그렇게 시작한 경청기도는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내 몸과 영혼을 소생시켰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황홀한 동행을 허락해 주었다. 찬송가 한 소절처럼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라는 간구의 구체적인 응답을 경험케 해주었고, 내적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성령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능케 해주었다. 지속적인 경청기도를 통해 머리로 ‘해야 한다’는 강박적 기도가 아니라 몸이 갈망하는 참된 안식 기도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 한 차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몸에 주의를 주며 수차례 하는 기도가 되었고 ‘쉬지 말고 기도’ 하는 삶이 되었다. 그렇게 한 지 벌써 14년이 되었다.

경청기도는 내 삶과 사역에 큰 변화를 가져온 기도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적극적으로 소개하지 못한 것은 관련된 자료 대부분이 비개신교나 비보수주의 계통에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청기도는 오랜 기독교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에 부담을 갖고 집필을 고려하던 중 본서 「경청기도」 *When the Soul Listens*를 접하게 됨은 큰 안심과 기쁨이었다.

이 책은 경청기도에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에게나 안심하고 추천할 수 있는 책이다. 먼저 출판사가 복음주의 대표격인 NavPress란 점이다. 이 책은 NavPress가 소명과 확신을 갖고 기획하고 있는 <영성개발시리즈> 중 한 권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뢰받는 달라스 윌라드가 책임편집을 했다. 저자 켄 존슨은 영성 기도 부분에 박사학위를 받은 권위자로 복음주의 문화에서 인기 있는 영성 지도자며 수련회 강사로서, 이미 영적 훈련을 주제로 17권의 책을 저술한 검증된 사람이다.

저자는 독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갈망을 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책을 집필했다. 두텁지 않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다뤄야 할 경청기도의 성경적 토대와 영적 효과, 그 원리와 방법, 요구되는 분별력 등을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명료하게 보여준 점이 탁월하다. 경청기도에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독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일치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침투를 경험하며, 그분이 목적이 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노상헌(남서울은혜교회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 실천신학 교수)

「경청기도」의 저자 켄 존슨이 4월 7일-25일까지 한국 레노바레(www.renovarekorea.org) 공동대표: 이동원, 강준민, 박은조)의 초청으로 방한합니다.

남서울은혜교회, 지구촌교회, 동부교회, 창조교회, 새린교회 등에서 경청기도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CUP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745-7231, cup21th@paran.com)

